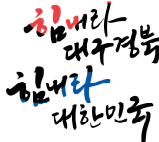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5. 14.(목) 총 3매(본문2, 붙임1)	
국토교통부	공원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신보미, 사무관 최승연, 주무관 이승연 ·☎ (02) 2131-2033, 2035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15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5. 15.(금) 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숙소부지 국민개방 추진

- 국민개방 준비 위해 담장 일부를 허물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
- 김 장관 “용산공원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 아끼지 않을 것”

□ 용산기지내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부지가 우리 국민에게 개방된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(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유홍준) 심의사항의 후속조치로, 미군 장교숙소 5단지*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우선 담장 일부(15m)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.

* (5단지 개요) 부지 : 약 5만㎡ / 건축물 : 주거 16동(129세대) 및 관리시설 2동

□ 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'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)대한주택공사(現 LH)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·운영하던 시설로,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어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으로,

- 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.

- 정부는 올해 하반기 본격 국민개방에 앞서,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,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개보수할 예정으로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이며,
 - 하반기 본격 개방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,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최승연 사무관(☎ 02-2131-20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 장교숙소 5단지 : 부지 약 5만 m^2 / 건축물 18개동(주거 16동(129세대) 및 관리시설 2동)